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 臼齒)의 「구」자를 숫자화 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령별 치아 관리법

청소년기

- 영구치 어금니는 치아 홈 메우기로 충치 예방하기
- 치실, 치간 칫솔 사용 습관화하기
- 치아 위치 확인 후 치아 교정
- 16세 경에는 방사선 촬영으로 사랑니 상태 확인하기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인성 감염병이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하여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6월부터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일부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1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제2급감염병
살모넬라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노로 바이러스감염증 등 제4급감염병 장관감염증

2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설사, 구토, 복통, 오심 등 장관감염 증상



모기 매개 감염병

주요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건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본뇌염	17	34	7	23	11	16
말라리아	576	559	385	294	420	747
뎅기열	159	273	43	3	103	205
지카 바이러스	3	3	1	0	3	2
총합(건)	755	869	436	320	537	970

모기매개 감염병 증상 및 특징

모기매개 감염병	증상 및 특징
일본뇌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뇌염, 무균성 수막염, 비특이적 열성 질환 등이 발현 • 급성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39℃~40℃),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등을 보이며, 의식장애, 경련, 혼수 등에 이르게 되면 회복되어도 1/3은 신경계 합병증이 남을 수 있음
말라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병 후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남. 한두 시간 동안 오한, 두통, 구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오한기가 먼저 나타나고, 피부가 따뜻하고 건조해지고 빈맥,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6시간 이상 지속된 후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짐

Denggi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시, 붉은 반점과 함께 갑작스런 고열과 관절통, 안 와통증 등 심한 통증 동반 • 증상으로 발전시 혈장 유출이나 쇼크, 출혈성 징후 발생 • 유행국 범위가 넓은 모기매개 감염병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는 무증상이나, 일부 반점 형성과 발진을 동반하여 발열, 관절통, 결막염,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 발현 • 임신부 감염 시에는 소두증과 심각한 태아의 뇌 결함을 유발할 수 있음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기후 변화와 건강

—개요—

기후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깨끗한 공기, 안전한 식수, 영양가 있는 식량 공급, 안전한 피난처 등 건강의 필수 요소를 위협하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 보건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기후 변화로 인해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및 열 스트레스로만 매년 지구상에서 약 250,000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비용은 2030년까지 연간 2~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대비와 대응을 위한 지원 없이는 대처능력이 가장 떨어질 것입니다.

화석 연료의 추출과 연소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은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교통, 식품 및 에너지 사용 선택과 같은 많은 정책과 개별 조치는 대기 오염을 줄임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주요 건강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염 에너지 시스템의 단계적 폐지나 대중 교통 및 활발한 이동의 촉진은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연간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가정 및 대기 오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

기후 변화는 폭염, 폭풍 및 홍수와 같은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식량 시스템의 붕괴,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품 매개 질병의 증가, 수인성 및 매개체 매개 질병, 정신 건강 문제 등 이미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 변화는 생계, 평등, 의료 및 사회적 지원 구조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건강을 위한 많은 사회적 결정 요인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에 민감한 건강 위험은 여성, 어린이, 소수 민족, 빈곤 지역 사회, 이주민 또는 실향민, 노인 및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인구의 취약성, 현재 기후 변화 속도에 대한 회복력, 적응 정도와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위험한 온도 임계값 위반과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터닝 포인트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지금 취하는 혁신 조치의 정도에 따라 점점 더 달라질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응—

WHO는 기후 회복력이 있는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파리 협정에 대한 기존 국가 결정 기여금의 이행으로 인한 건강 이익과 보다 야심찬 기후 행동으로 인한 더 큰 이익 가능성을 평가하는 국가를 지원합니다.

기후 변화 및 건강에 대한 WHO의 작업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옹호 및 파트너십: UN 시스템 내 파트너 기관과 조정하고, 기후 변화 의제에 건강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기후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전파합니다.
- 과학 및 증거 모니터링: 기후 변화와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 검토 조정; 기후 변화에 직면했을 때 국가의 준비와 필요를 평가합니다. (글로벌 연구 의제 개발)
- 기후 변화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지원: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개선합니다.
- 기후 변화와 인간 건강에 대한 역량 구축: 국가가 기후 변화에 대한 건강 취약성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자료출처: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인고—

1.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2. 에어컨 실내 적정온도 유지
3. 개인 텀블러 이용하기

자료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